

# 코로나로 지친 마음 '우리동네 미술'로 달랜다

장성군과 함평군,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문화뉴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80%를 포함해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지역 정서에 부합한 '우리동네 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민이 공감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성군은 황룡강 일원에 조성한 테마정원에 '힐링허브 정원에 날개를 달다'와 상시 전시관으로 운영 중인 장성역 기차갤러리를 무대로 '장성역 기차

## 장성·함평·고흥군 문화뉴딜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주민 공감하는 미술작품 설치·운영...예술인 일자리 창출도

갤러리의 재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아름답게 조성된 황룡강 테마정원에선 메리골드·라벤다·한련화 등을 감상하고 달콤한 애플민트·체리세이지 향기 속에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유럽풍 풍차와 아가자기한 집들로 꾸며진 동화속 풍경이 압권인 테마정원은 미술작품 설치를 통해 살아 숨쉬는 전시장으로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다.

장성군은 작가팀 선정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선정된 작가팀은 염색체험, 우드버닝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타일아트와 미디어아트 등의 공공미술작품을 내년 2월까지 설치·전시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엘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훌륭한 공공미술작품의 탄생을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미술작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수산봉 등지에 다양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함평천지길

조성 사업과도 연계해 예술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읍내 일대에 확대 조성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미술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작가, 행정지원 인력 등 37명 내외의 팀을 구성해 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작가팀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인건비와 작품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고흥군은 오는 10일까지 '우리동네 미술' 참여 작가팀을 모집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예술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6일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을 방문, 입주주민을 격려했다. <함평군 제공>

## 이재민에 조립주택 함평군, 2개 동 지원

함평군은 집중호우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2개동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함평군은 대동면 상곡리 매동마을에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 주택 전파와 침수 피해를 본 2가구에 임시 조립주택 2개 동을 설치, 지난 6일 입주했다.

임시조립주택은 방과 거실, 주방 등 24㎡ 면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모두 갖췄다.

임주 수재민은 1년 이내로 임시 주택을 무상 사용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전기요금 전액을 면제받고, 이후 3개월은 50%의 전기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함평지역은 지난달 내린 폭우로 도로 75곳과 하천 47곳이 파손되거나 유실됐으며 204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함평군은 총 136세대 204명의 이재민들에게 각각 긴급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지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폐전지 10개 가져오면 새전지 2개 교환해줍니다"

강진군, 14~18일 분리배출 캠페인

강진군이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

강진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새전지 줄게 헌전지 다오' 캠페인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는 폐건전지 10개를 묶어서 읍·면사무소에 가져오면 새건전지 1세트(2개)로 바꿔준다. 1일 1인당 5세트로 제한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이 캠페인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심코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기 쉬운 폐건전지를 수거해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건전지 내부에 포함된 철·아연·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다 쓴 건전지를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지만 올바르게 배출하면 귀중한 자원이 된다"며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꾸민 장성역 기차갤러리(왼쪽)와 힐링허브정원.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꾸민 장성역 기차갤러리(왼쪽)와 힐링허브정원. <장성군 제공>

## 함평군, 농산어촌개발 사업비 110억 확보

국비만 77억 달해 올 최대 성과...지역경제 숨통 다소 트일 듯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함평군이 거둔 공모사업 중 최대 성과로, 국비만 77억 원에 달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 인프라 조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다. 생활편의서비스 품질 향상, 주민화합도모 등 농촌정주여건 개선이 주목적이다.

함평군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는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적극 육성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총 40억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으로 달빛그린 키즈 놀이터·노인 문화공간 등을 새롭게 조성해 세대별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립성장기반 구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 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농협 화순군지부, 코로나19·수해구호물품 기탁

온수매트·쌀·농산물꾸러미 등 1700만원 상당 전달

NH농협 화순군지부가 최근 수해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화순주민들에게 온수매트, 쌀, 농산물 꾸러미 등 17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 <사진>

온수매트와 쌀은 수해 주민들에게, 농산물꾸러미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전국 농협 화순군지부장은 "지역민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성원 덕분에 농협이 존재한다"며 "어려운 상황이 빨리 수습돼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화순군지부는 지난달 13일 화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피해가 큰 지역을 담당하는 화순·전원·동북농협 등에 무이자 용자를 포함한 긴급 자금 지원을 했다. 또 피해지역에 양수기 등



긴급재난물품을 지원하며 수해 복구에 적극 나섰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